

특강 1

백제고도 공주의 역사와 문화

이해준(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56차 국공립대학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백제고도 공주의 역사와 문화

이 해 준(공주대 사학과)

1. 수수께끼의 백제역사

백제역사와 문화는 최근 들어 아름답고 화려하게 치장되기도 하지만, 아직도 백제의 역사는 오래 전에 우리의 머리에서 사라진, 멀어진 역사이고 패한 왕국의 역사라는 면에서 왜곡과 굴절, 축소가 많았었다. 따라서 연구자보다는 오히려 향수와 애수에 묻힌 시인 묵객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대상이기도 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백제의 고도인 부여나 공주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백마강이나, 삼천궁녀나 낙화암 같은 백제 패망의 여한이며 그것으로 백제문화의 이해를 종결짓는 것처럼도 보인다. 더욱이 일본인들을 겨냥하는 문화전파의 수식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을 떠난 껍데기논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크다. 왜냐하면 받는 쪽의 고마움과 주는 쪽의 우월감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만나고 있고, 실제 줄 수 있던 문화의 실체를 아주 피상적으로밖에 모른다는 섭섭함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제문화권은 백제문화 본거지로서 강한 인상과 유적의 집중이 다른 지역에 비길 수 없고, 여기에 더하여 아직은 개발의 진전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아 길게 보면 이것은 “아껴둔 문화자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직도 곳곳에 산재한 한국의 전형적인 목가적 분위기, 그리고 이러한 자연과의 조화 속에 특징적인 백제문화의 숨결이 남아 전한다는 사실은 이방인과 도시민의 지적 감성을 자극하고 유인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이다.

2. 백제사택한 새 왕도 ‘熊津’

공주는 부여와 함께 ‘백제’와 ‘백제문화’를 논외로 하면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상징하기 어려운, 백제와 정말 깊은 인연을 간직한 곳이다. 이들 지역은 과거 백제의 왕도였다기 보다 아직도 백제의 도읍인 것처럼 생각될 정도이다.

백제의 유적과 문화가 거의 이 두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음식점이나 다방 이름이나

도로 이름, 다리 이름, 그밖에 온갖 상징물들이 모두 백제가 오늘에 살아 있는 듯 보인다. 그래서 으레 백제를 연상하면 공주와 부여를 생각하게 되고, 현지의 주민들 역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랑삼는다. 공주는 비록 6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백제의 왕도가 있었던 곳이지만, 무령왕릉과 공산성, 그리고 금강과 곰나루의 전설에 백제의 혼들이 아직껏 꿈틀거리며 살아 있는 곳이다.

웅진시대의 백제사

웅진은 북부에는 차령산맥이 발달해 있고, 남동부에는 계룡산이 위치하며, 그 사이로 금강이 공주의 북서방향을 가로막고 흐르고 있어 산맥과 강에 의하여 형성된 소위 천연의 요새였다. 이처럼 공주는 산지의 발달로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공주로 들어오기 위한 길은 산맥과 산맥사이의 발달된 계곡으로 제한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곳을 관통하여 흐르는 금강은 서해로 흘러들고 있어 대중국교통로 확보에 유리했으며, 남쪽으로는 호남평야가 펼쳐져 있어서 교통과 경제의 요충지이기도 하였다.

백제의 웅진천도가 이루어지면서 금강유역은 마한시대에 이어 백제사의 전개에 다시 한 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기로 등장하게 되었다.

고구려의 공격으로 개로왕이 사망하고 황급히 왕위에 오른 문주왕이 수도를 선택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웅진의 군사지리적 요인 등으로 말미암아 일단 웅진을 수도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최근의 수촌리 유적발굴을 통하여 공주천도 이전에 이곳의 토착세력의 고도로 발달된 문화가 발견됨에 따라 지역 세력의 존재와 영향력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어쨌든 웅진에 도읍한 이후 백제는 이들의 지형을 이용하면서 웅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요로 곳곳에 크고 작은 형태의 산성들을 축조하여 도성을 방비하였던 것이다.

동성왕이 즉위한 후 천도초기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해 가게 되면서 새로운 지배세력이 등장하는데, 이들 새롭게 등장한 성씨는 대개 사씨, 목협씨, 연씨, 백씨라고 추측된다. 동성왕은 천도 후 되풀이된 정치적 혼란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중용을 추진함으로써 신진세력의 등장이 현실화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웅진시대 신진세력의 등장은 정국안정이라는 백제왕실의 정치적 필요성과 이들의 현실적인 세력성장이 짝 지워진 데서 것이었다.

그러나 동성왕대 왕권의 강화와 정치적 안정기반을 구축하려던 시도는 용이하게 수행된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배질서가 일단 동요된 상황에서 지방 세력들의 향배가 유동적이었고, 또한 신진세력의 등장에 따른 신구세력의 갈등이나 마찰에 대한 조정도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히 신진세력의 힘의 비대화는 왕권으로서 견제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동성왕은 임천의 가림성을 축조하여 웅진지역에 기반을 가진 위사좌평 백가를 그곳의 성주로 내보냄으로써 점차 비대화하는 신진세력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성왕의 이와 같은 견제조치는 위사좌평 백가를 위시한 신진세력의 불만을 사게 되었으며, 결국 동성왕은 사비지역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백가가 보낸 자객에 의하여 피살되는 우환을 겪게 된다.

동성왕 사후 왕위에 오른 무령왕은 왕권강화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정치질서를 안정제도에 올려놓았다. 무령왕은 즉위시의 나이가 40여세여서 연령적으로 원숙하였고, 또 그의 즉위가 전왕이 시해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왕을 시해한 중심인물인 백가의 반란을 진압한 무령왕의 권위는 더욱 높아졌다. 또한 무령왕은 중국의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선진 문물을 과감하게 수입하는가 하면, 양나라로부터 영동대장군의 작호를 받음으로써 왕위의 고양과 대외적 신망을 높임으로써 국가의 대외적 안정과 발전을 꾀하기도 하였다.

결국 웅진에 천도한 백제는 초기에 적지 않은 혼란을 겪지만 동성왕대에 이르러 점차 혼란의 극복과 안정을 도모하면서 국가 중흥의 기틀이 마련되고 이어 등장한 무령왕대에는 확실한 정치적 안정과 함께 국력 증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세상을 놀라게 한 무령왕릉 발굴, 백제사연구의 새 장

1972년 작업 중 우연하게 발견된 무령왕릉과, 이곳에서 출토된 108종 2천 9백여 점의 다양하고 화려한 유물들은 1500여 년만에 빛을 보았다. 이 무령왕릉이 발굴된 이후 마치 시골 여관과도 같았던 공주박물관은 새롭게 단장되어 오래도록 바라던 위상을 되찾았고, 금강철교와 공산성에서 경관에만 넋을 잃던 사람들로 하여금 백제의 문화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자들에게서도 일어났다. ‘공주’와 ‘백제문화’는 사실 이때부터 비로소 관심을 얻게 되었고, 발굴을 통하여 빛을 본 자료들은 우리 고고학과 역사학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무령왕릉이 발견된 공주 송산리 고분군은 원래 일본인 학자에 의하여 발견되었던 것으로, 규모나 위치로 보아 이곳의 고분들이 웅진시대의 왕릉일 것이라는 추측은 누구라도 할 수 있었다. 특히 송산리 6호분의 경우는 낙랑이나 중국의 전축분 묘제를 그대로 변안해 축조한 남한 유일의 전축분인데다가, 4벽에 벽화가 그려져 있어 당시까지의 백제의 미술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손꼽혀 오던 실정이었다. 그런데 이같이 중요한 송산리 6호분의 벽화가 누습으로 인하여 훼손되어 갔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작업 과정에서 무령왕릉의 모습은 우연히 발견되었던 것이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은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학술적 자료가 되고 있으나, 역시 그중에서도 가장 백미에 속하는 유물은 왕과 왕비의 지석(매지권)이다. 이 지석의 내용은 무령왕과 왕비의 묘지를 산천신에게 샀다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왕릉의 주인이 '무령왕'이고 왕릉의 축조가 이루어진 시기가 525년으로 분명하게 밝혀짐으로서, 이 왕릉에서 나온 유물들의 정확한 년대를 알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신라의 서울 경주에서 수많은 왕관과 귀금속 장신구들이 출토되었지만, 정확하게 그 유물의 주인과 년대가 기록된 경우는 거의 없다. 천마총이니 금관총이니 이름 붙여진 왕릉들도 모두가 그 정확한 주인을 알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 지석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백제의 장신구들은 유례가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108종에 달하는 각종 유물들이 동시에 빛을 보게 됨으로써 백제문화연구의 새로운 경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이들 유물과 출토상태는 송산리의 고분유물 전시관과 공주박물관에서 한눈에 잘 살필 수가 있다.

웅진천도와 공주 토착세력

아직은 이 방면의 연구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유적이거나 유물의 출토 예를 보아 금강을 연하여 동북으로는 지금의 연기지역이나 유성(대전)지역, 남으로는 탄천, 연산지역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한 공주지역 마한세력의 주요 거점이었을 가능성은 높다. 필자는 전략적인 중요성과 함께 불안한 시기에 바로 이들 세력이 백제왕실의 보위를 확약하고, 이를 받아들인 문주왕에 의하여 공주천도는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믿는다.

이 과정에서 공주시기의 백제 왕실은 중국 남조와의 외교적 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그들의 지원 속에 실추된 왕권의 회복을 기도하였으며, 무령왕릉 출토유물에서 보여지는 중국 남조문물의 모습이 그 흔적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혼란기의 단명, 불우했던 문주왕(475~476), 삼근왕(478~479)에 뒤이어 즉위했던 동성왕(479~500)과 무령왕(501~522)은 이 같은 국가적 위기를 잘 관리하면서 강력한 왕권의 재건에 성공했던, 백제로 보면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영명한 군주를 만난 셈이었다. 그들은 내우와 외환을 일단 정리하고 왕권의 안정을 이룬 왕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벌였던 궁실의 수축, 중축 남조와의 외교적 노력, 신라와의 영토전쟁 등은 내용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왕권의 위세 과시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무령왕대에 그 같은 화려하고 도를 넘는 유물들이 만들어진 구체적 배경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던 2003년 12월, 공주 의당면 수촌리에서는 위와 같이 알려져 왔던 백제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충격으로 다가오는 고분이 발굴되었다. 학자들은 이 고분에서 나온 중국제 도자기들을 기준으로 고분의 축조시기를 5세기 초반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하기 이전 이 지역에 이미 백제의 왕족, 또는 그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배 세력이 있었다는 뜻이 된다. 이것으로 보면 지금까지 고고학계가 한성 백제기에는 백제가 공주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해왔던 것에 대하면 공주 수촌리 유적은 고고학계의 통념을 한번에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 된다. 학계에서는 고분의 축조시기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1971년 무령왕릉이 발굴된 이후 최대 규모의 백제유적 발굴로서 수촌리 유적은 큰 의미가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재미있는 상상을 하나쯤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고마나루에 얽힌 곰 전설이 바로 그것이다. 고마나루는 무령왕릉이 있는 송산리에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금강변의 나루 이름이다. 이곳에는 옛 부터 민간신앙의 형태로 곰을 모셔왔던 사당이 있었고, ‘웅진독제’가 치루어졌음이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이를 증거 하는 곰의 석상이 20여 년 전에 이곳에서 발견되었는데 비슷한 형태의 토제 곰상이 부여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우연히 발견된 이 곰 석상은 현재 공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최근 고마나루에는 곰 사당도 복원되었다.

물론 이 전설을 이야기로만 보면 혹 재미있다거나 황당한 이야기로만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는 이 전설을 수없이 들어오면서, 왜 이러한 전설이 유독 공주에만

전해지고, 특히 이야기꺼리로 치부될 이 사실을 공주사람들은 그토록 오랜 시간을 두고, 사당을 만들면서까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상기되는 것은 이 같은 꿈의 이야기가, 앞서 언급한 이 지역의 백제이전 토착세력문화와 관련지어 생각할 때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만약 우리가 곱나루 전설에 나타나는 꿈을 그러한 선행문화와 계통을 같이하는 선사-마한시대부터 있었던 공주의 토착세력으로, 또 인간인 나무꾼을 남천 하여 온 백제의 왕실세력으로 상정하여 보면 어떨까? 그렇게 가정하고서 다시 보면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라기보다, 이 이야기 속에 생생한 웅진시대의 정치사가 흡수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만약 이러한 생각을 연장한다면 부여로 다시 재천도하는 백제왕실, 허무한 마음으로 한에 맺혀 그것을 바라보는 꿈의 애절한 몸짓, 아마도 이것들이 공주지역민의 정서 속에 깃들여져 전승되어 오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공주박물관에 전시된 곱 像에서 그 같은 몸짓과 한 맺힌 분위기는 비단 필자만이 느낄 수 있는 느낌일런가.

3. 백제의 역사·문화적 특성

‘자연과의 조화’로 상징되는 백제문화

백제의 문화는 그 토기처럼 온화한 인상을 준다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모두가 섬세한 기교로 뒷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정리되고 다듬어졌다는 인상도 강하다. 촌티 물씬 풍기는 토기들, 화려하지 않으면서 격조 있는 조화를 보이는 기와무늬들, 근엄보다는 고졸한 불상의 미소, 목조건물을 연상케 하는 백제 탑의 기법과 절제된 단순미, 그런가하면 무령왕릉 부장유물과 부여에서 출토된 백제대향로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문화예술수준도 함께 백제의 모습을 전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문화의 실체가 대부분 왕도중심의 왕족문화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는 사실과,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면 삼국의 정치문화와 그 수준을 비교할 때 결코 백제가 그중 앞선 문화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상상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무령왕릉이나 산경문전, 미륵사탑, 백제대향로(봉래산용봉향로), 일본에의 문화전파 등을 보아서는 대단한 문화를 지녔던 백제임이 분명한데, 실제 연구상에

서 이 같은 점들은 아이러니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개방과 선진’의 백제문화

백제의 문화는 삼국중의 한 나라 문화로 어찌 보면 한국 고대문화의 보편성과 일정한 특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특히 백제의 문화는 개방성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신라나 고구려의 그것을 훨씬 능가한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문화적인 자신감에서 우리나라의 유연함인지, 아니면 자기 문화의 부정형(不整形)에서 비롯된 외래수용의 적극성인지 불분명하다. 백제의 고도 공주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수많은 금속공예품과 그 화려함을 보면서 우리는 이 같은 질문을 동시에 직면할 수가 있다. 공주 천도의 과정은 잘 알려져 있듯이 국운이 극히 쇠퇴하였던 매우 불안한 처지에서 단행된 것이었고, 부분적으로 왕권을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무령왕대에 그 같은 화려한 치장을 할 여유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굳이 그러한 위엄을 보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과연 백제의 문화수준에서 그러한 정도의 수준은 정말로 일반적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렇게 하여서라도 왕권의 위엄을 과시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인가? 뒤이어 다시 한번 미래를 설계한다면 서 부여로 천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백제의 왕권, 거기에 뒤따르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어쨌든 미술사연구를 통하여 지적되듯 백제의 문화예술 수준은 선진과 고도로 대변된다. 중국 남조와의 부단한 교류와 문화수용, 일본에의 문화 전파능력, 통일이후 신라의 예술에 기여한 백제 장인의 숨결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삼국 중에서도 유독 백제인들만은 금석문이나 공예품에 장인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이점도 예술인에 대한 특별한 대우와 그들의 지위를 엄두에 두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고구려와의 관계에서 백제는 같은 뿌리이면서도,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맞부딪혔던 적국이었고, 신라와의 관계에서는 초기 동맹국으로 우의를 다지다가 한강유역의 접거를 둘러싸고 동맹이 파기되면서 멸망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투쟁을 하였던 상대였다. 삼국은 비록 각각의 영역과 문화기반을 달리하면서 경쟁하였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서로 열키고 설키는 관계를 지니고 발전하였다. 백제문화의 성격도 바로 이러한 상관관계, 즉 한국 고대문화의 한 판으로 3분의 1인 보편성과 연관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바다와 강을 이용한 백제문화

한편 백제의 문화는 여러 측면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겠으나, ‘바다와 강을 이용할 줄 안 사람들의 문화’로 불려져도 좋을 듯하다. 바다와 강은 문화의 수용과 교류, 전파의 길이다. 이 열린 창구를 통하여 백제는 중국 남조의 선진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이를 꽃 피울 수 있었다. 또한 마한의 여러 지역문화는 강과 바다와 연관 지역에서 고대 농경과 천혜의 경제적 풍요를 기반으로 발달하였는데 백제는 이를 한데 아우르며 다양한 문화성격을 지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백제문화가 전반적으로 다양하면서도 온화함과 섬세함이 곁들여진 것임은 이러한 고대 농경사회의 풍요가 밑바탕된 것이었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 연계되는 백제문화의 모습이 사실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며, 한강유역의 선사문화와 백제문화, 금강유역의 선사문화와 백제문화, 영산강의 마한세력과 백제문화, 충청도 서해안의 선사문화와 백제문화 등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다.